

# 제2회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 開幕

## 이동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2회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가 겨울날만 1번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입구에서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지난해 12월30일 개막했다.

행사장에는 100m와 30m 길이의 계곡 눈썰매장을 비롯해 산천어와 송어를 낚을 수 있는 얼음 낚시터, 추억의 얼음썰매장 등이 들어섰다. 또 계곡을 가득 매운 최대 30m 높이의 얼음기둥들이 장관을 연출하는데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으며 밤에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음악, 얼음기둥이 어우러지는 쇼도 펼쳐진다.

아울러 초가로 장식된 길이 50m

길이의 고드름 터널이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이 밖에 초가집으로 재현된 전통터러 체험장에서는 군고구마와 감자, 추억의 도시락, 가마솥 등 지랄죽 등을 맛볼 수 있다.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백운계곡이 위치한 이동면 도평리는 '도리돌'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데 이는 한번 다녀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그만큼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공예의 도읍지로도 알려진 이 지역은 또 최근 들어 한방김치 등 다양한 건강먹거리 문화로도 주목을



제2회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개막돼 겨울철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www.donggyeok.com) 또는 031-536-8814로 하면 된다. 지역해 기자 94spice@hanmail.net

## 韓國의 선비정신 · 18

### 송강 정철(松江 鄭澈)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전후에 이어서〉  
 ▶1568년(선조5) 흥문관 교리, 사헌부 지평  
 ▶1575년(선조8) 동서문장이 심하므로 벼슬을 버리고 귀향  
 ▶1576년(선조9) 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서 유학의 황금기를 이룬 시 대이었다. 아울러 동서문장이 태동되는 시기였다.

관동의 절경속에 묻혀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선조의 총애에 대한 고마움으로 기꺼이 관학사의 직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때 그의 천재적 재질을 나타내 우리 문학사에 불후의 명작 관동별곡(關東別曲)과 포고문이나 유시문을 대신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민속을 순화하는 훈민가(訓民歌) 16수는 시조형식을 빌어 지은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 왕이 몽진길에 개성에 이르렀을 때 노인들이 죽난시기에 정정승을 석방하여 나라일을 맡아 보도록 하라는 진정으로 정정승을 석방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충효대절(忠孝大節)이 지극한 경이여 되도록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라고 하였다. 이산해는 파면되었다.

송강은 달려와 왕을 호종, 의주까지 모시었다.

의주 행재소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다. 송강이 유성룡과 같이 왕을 모시고 있는데 인빈김씨(仁嬪金氏)가 인절미를 마련하여 올렸다. 왕과 다른 사람은 귀한 것이라 하며 인절미를 들었는데 송강은 인빈을 보고 민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자리를 떠나 버렸다. 인빈은 무안해하며 그간 파난길에 상함을 비롯한 한신들이 굶주리고 있어 침상이 돼 생기가 딱을 만들어 찬상하였는데 송강이 이렇게 망신을 주는 나고 하며 울었다. 송강의 대쪽 같은 바를 소하였다.

그 다음날 송강은 체찰사(體察使)에 임명되어 기호(畿湖), 호남(湖南) 지방을 순무하라는 명을 받고자 하면서 원숙한 경지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하였다.

사미인곡(思美人曲),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성산별곡(星山別曲) 등의 장가와 다가가 쏟아져 나온 것도 이 무렵이다. 조정에서 물러나와 있으면 있을수록 임금에 대한 그의 충정은 끝없는 그리움으로 나타났다.

1589년(선조22) 우의정으로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을 다스리고 사인의 여수가 되었다.

1590년(선조23) 좌의정에 승진, 1591년(선조24) 왕세자 책봉문제가 제기되자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같이 관해군의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이산해의 계약에 빠져 혼자 관해군의 책봉을 건의했다. 이때 신성군(信誠君)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사서 진주로 유배, 이어서 강계로 이배되었다.

송강은 대쪽같은 성격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박력이 떨어져도 할 말은 다하는 까닭으로 상대방과 융화되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성산곡도 시작하고 귀향하였다. 성산에 가있는 동안 여러번 벼슬자리를 내렸으나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성산에서 자연과 시(詩)속에 파묻혀 어지러운 정치기류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1580년(선조13) 45세 되던해 강원도 관찰사에 등용되자 이번 만은 어머를 어기지 못하여 부임하였다. 당시 송강에 대한 선조의 총애는 남다른 바가 있었다.

반대파로부터 많은 모함이 있었다. 이때마다 송강은 청직함과 충성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선조는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정철은 마음이 바르고 그 행동이 나무랄 데 없다. 다만 그 말이 곧을 뿐이다. 그의 사람됨과 그 충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선조는 반대파의 빗발치는 상소를 물리치고 송강을 가까이 불러 들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인이 특세하고 있는 때이어서 조정에 두지 않고 지방의 방백으로 보낸 것이다. 이리하여 송강은 이때부터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한 것이다.

결백한 성격으로 말과 행동이 청직하여 사람들을 널리 정치적으로 포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술과 풍류와 시로써 벼슬을 벗어난 송강은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으로서보다도 한 시인으로

1583년(선조16) 예조참판, 이어서 형조와 예조판서 역임.

1584년(선조17) 대사헌에 임명, 율곡이 별세하니 동인들의 천하가 되자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이 50세 인생의 내리막 길에 다다른 송강은 어지럽게 걸어진 관계의 생활에서 물러나 조용히 자연과 벗하면서 원숙한 경지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하였다.

1591년(선조24) 왕세자 책봉문제가 제기되자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같이 관해군의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이산해의 계약에 빠져 혼자 관해군의 책봉을 건의했다. 이때 신성군(信誠君)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사서 진주로 유배, 이어서 강계로 이배되었다.

1589년(선조22) 우의정으로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을 다스리고 사인의 여수가 되었다.

1590년(선조23) 좌의정에 승진, 1591년(선조24) 왕세자 책봉문제가 제기되자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같이 관해군의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이산해의 계약에 빠져 혼자 관해군의 책봉을 건의했다. 이때 신성군(信誠君)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사서 진주로 유배, 이어서 강계로 이배되었다.

## “우리는 영화보러 포천도서관 간다”

### 25일까지 해리포터 등 영화 9편 상영

겨울방학이다. 평소에는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 아이를 데리고, 이곳 저곳 가고 싶지만 마땅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주위의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해서 일

마야빠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 경기도립 포천분관도서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1월의 상영작으로는 ▶11일 오페라의 유령(12세 관람가) ▶12일 너는 내운명(18세 관람가) ▶13일 지금 만나러 갑니다(12세 관람가) ▶17일 박수칠 때 떠나라(15세 관람가) ▶18일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전체 관람가) ▶19일 주라기 공원3(12세 관람가) ▶20일 열의누(18세 관람가) ▶24일 트로이(15세

관람가) ▶25일 내 머리 속의 지우개(12세 관람가)가 있다. 장소는 포천도서관 2층 강의실이 며, 상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립 포천분관 도서관 어린이자료실(031-536-0828)로 연락하면 된다. 양근원 학생영예기자단장

## 특별기고

### 2005년 ‘문단’ 종횡기(文壇縱橫記)

김창중(수필가, 본지 지문위원회 고문)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집 「떡배 단배」를 만든 신 아동문학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시인 마해송 「윤공강」과 함께 개성이 낳은 큰 별이었던 마해송 님은 아동문학가의 최초의 높이 높이 뜬 별이었다. 외국에는 아동문학 장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문단에 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으며 마해송님의 동화책이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인기를 받았다.

또 한국수필가협회를 창설(1972년11월27일)하신 수필문학계의 총수이자 대모이셨던 조정희 회장 할머니가 승천하셨다. 서정범(경희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수필가 협회를 만드셨던 조정희 할머니가 종신제 회장 자리를 어찌 뿌리치고 홀출하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궁금하다고들 하였다.

(수필가 협회는 조정희 할머니의 분신이 아닌 그 자체였다.)

새로 미남형의 서울시의원이자 수필문학의 이론적 저서를 만든 이철호님이 제2대 회장으로서 직접 투표에 의한 선거로 강화도 총회에서 민장일치로 당선되었다.

조정희 할머니와 함께 한국수필가협회 창설하셨던 서정범 교수님은 무거운 수필과 깊은 연구가 담긴 수필로 수필문학계의 북극성이셨는데... 필자는 조금 소홀히 대접해 드린 것 같아 서운하다.

또, 국제 PEN클럽 한국본부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시인 문호치 팀(부이사장: 김중상 이수화 김

학 이길원 정중명)과 시인 이근배 팀(임기원 이명재 유현중 정목일 유자호: 부이사장)이 겨루어 문호치 이사장 팀이 절대 다수로 임원선거에 당선된 영광을 차지하였다.

PEN(시인 수필가 소설가)클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강 팀이라고 극찬하는 소리가 높다. (필자는 누구를 투표하였느냐고 그 것은 절대 비밀이다. 2005년 2월 25일 우편투표로 발표완료)

### 마해송(馬海松) 선생 100주기 수필가협회 조정희 할머니 승천

제32대 국제PEN클럽 임원선거는 이렇게 끝났다. 아동문학가이자 작가로 유명한 새마을 가요 '좋아졌네'의 작사자 이진호 님이 부인과 이별(승천)한지 1년 만에 처녀와 새장가를 들었는데 청주방송 전파를 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제PEN본부에서는 중국동포에게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필자도 10권의 저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필자는 다작(多作)의 글쟁이이러는 별명에 걸맞게 순수문예지나 내 고향 포천·경기도·교육계·신문잡지 등에도 글을 써서 팬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편지를 받았

던 한 해였다. 문학시대 신년호(70호)에 「오늘밤에 잠이들면」을 필두로 문학사울 신년호(제8호)에 「태극기의 힘」, 문학세계 2월호(127호)에 「수사실 일화」, 한국문인 2·3월호(제30호)에 「날고픈 서울 하늘」, 삶의 향기(봄호)에 「효심으로 하는 봉사」, 순수문학 3월호(136호)에 「444·2222 너」, 수필사랑 3월호(20호)에 「수자이야기」, 경기인(도민회지) 3·4월호에 「금강산 가는 길에」, 단행본 내마음의

: 통권16호)에는 「사경점상(死境點想)이 발표되기도 했다. 연재물로는 공무원문학에 수년 간 이어오는 「문화와 사랑이야기」(나도항·춘원·염상섭의 사랑이야기)가 연재되었으며 필자가 편 집·논설위원으로 있는 교육신문(주간)에는 한국 시단의 종진·종건·신인을 비롯하여 포천의 이재욱 시인 이종희 시인의 시 작품을 감상문 형식으로 실었는데 「수필가 김창중의 현대시 감상」이라고 제하여 연재 30여편이었다.

끝으로 내 고향 포천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향토지 포천신문에도 「수필가 김창중의 포천 이야기」라고 제하여 연재하여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과 찬사를 받았던 한 해였다.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비평을 받고 웃음을 짓고 살았던 한 해였다. 잊지 못할 일은 내 고향 향토 신문인 「포천신문」이 포천의 정론지로 중앙 일간지에 뒤지지 않게 발전하고 있음은 경하(慶賀)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 문단의 원로들도 포천신문에 큰 관심과 주의 깊은 바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였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민주)의 조선헌왕실록(포천관계본) 번역 발행행이나 「포천문화」지 발행 등을 통한 포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또한 특기할만한 한 해였다.



수필가 김창중의 <포천 이야기> (153)

### 개(犬)의 해 이야기

개는 견(犬)과 구(狗)로 구분된다. 집에서 기르며 가족과 같이 완상용으로 기르다가 자연사 하면 물어주는 개와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사를 가도 휴가를 가도 분신(分身)과 같이 개를 사랑하고 전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늘의 애견 인구의 폭속에서 애견인구 1천만 시대를 구가하는 내 나라이고 보면 개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사전을 보면 '개(Canis Familiaris)'는 식육류(食肉類)에 속하는 포유류(포유류)로 알려져 있으며, 여우와 너구리의 근연종(近緣種)이나 속(屬)은 다르다. 가까운 종(種)은 이리·늑대·

승냥이가 있는데 종류는 다르다. 큰 것은 '세인트버나드'로 송아지만 하고 작은 것 '지와와'는 생쥐만 하다.(외형은 생략한다) 개의 조상은 '이리' 군(群)→(자갈, 초원이리)이다. 중부 유럽의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야생에서 집 근처 정소로 다시 가족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개의 용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번견(番犬: 집 지키는 개), 경찰견, 수렵견, 썰매개, 양물개, 맹인 인도견, 심부름개 등 다양하다. '하운드 족', '비이글', '블라드하운드', '바세트하운드', '포인터', '독일포인터', '셰퍼드' 등 여러 종이 수렵, 노동견이고 애견견은 '스피츠', '말티즈',

'김차왈츠', '스파이얼' 등이 있고, 경주용과 투견용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개는 '진도견'과 '홍산견', '완도견', '삼살견'이 있는데, 멸종을 막기 위해 진도개를 제53호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삼살개보호협회, 진도개보호협회도 활동이 눈부시며 포천의 여러 가정에서도 진도개, 홍산개, 삼살개가 다수 사육되고 있다.

3-4천년 전 신석기 시대에 한 반도에서 사육되었던 개의 유골이 발견된다. 진도의 진도견, 잠백산맥의 홍산견, 소백산맥의 삼살견은 우리의 역사 속 신화시대부터 내려온다고 볼 수 있다.

전설 속의 북청의 '가룡이' 개나 요즈음 수백리를 주인이 차를 타고 이사를 가도 냄새를 맡고 고속도로를 달려 찾아가는 우리 가정의 이름 없는 개도 세계 토피 뉴스를 타고 지구를 돌고 있으니 의리와 지조를 존중하는 한민족의 주인성을 닮은 개의 습성을 보는 듯 하여 가슴 뭉클함을 느낀다.

필자도 '자유문화'지를 통해 개의 족보본을 펼쳤던 생각이 난다. 1934년이 바로 갑술(甲戌)생 개띠로 일제 강점기의 '초등학교' 미군정 3년과 6·25 후 '중·고교' 수복 후 5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만 72세를 맞는다. 조국근대사의 큰 공을 이룩하기도 하였으며 또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 고향 포천 출신, 1934년생(갑술생) 이한중 총리가 80년대 1934년생들이 근대를 살아가는 애환과 역경을 말한 대목이 5대 일간지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일도 있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2006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결정

### 포천시 예술단체 8건 3천600만원 지원

경기문화재단(이사장 송태호)은 지난해 12월30일 2006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결정자를 발표했다.

포천시 문화예술활동에 지원금액은 8건 3천600만원, 의정부시 지원금액은 15건 1억2500만원, 양주시 4건에 1천500만원, 동두천시 4건에 1천200만원, 연천군 4건에 1천11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2006년도에 각 시군별로 실시되는 사업에 지원되며 사업 1개월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다음은 각 시군별 2006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결정사업 및 지원금액이다.

□포천 ▶강동희 시집발간 200만원 □광릉-연화 project(설치)김광우 350만원 □포천별곡 영평팔경 경기기묘 창극공연(박영실) 600만원 □제2회 마홀시화전 및 시화집

발간(손진홍) 200만원 ▶창작극 한내유혼(유우영) 1천만원 ▶2006포천현대미술제(이경진) 800만원 ▶제7회 정기회원전(이규준) 200만원 ▶장예우와 함께하는 우리소리 한마당(이희용) 250만원 □의정부

▶제8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춘향전(강신택) 3천500만원 ▶Vox Populi 프로젝트(대중의 소리 프로젝트) 강홍석 1천만원 ▶100년 걸린 택견 재연(김학민) 300만원 ▶제1회 의정부 소리 난장국(박영식) 250만원 ▶열수! 우리가락 우리품짓(박태운) 300만원 ▶제2회 정기연주회(박형국) 300만원 ▶제1회 경기북부지회전(송용근) 350만원 ▶한복사랑 제3집 발간(안국승) 500만원 ▶제10회 정기공연(오영란) 200만원 ▶훈의 부활(이미숙) 1천만원 ▶중국단동 문화예술단 합동공연(이미숙) 1천만원 ▶학생-교사 풍물 한마당(전정민) 200만원 ▶서도소

리한마당-의정부시지부정기공연(정아순) 500만원 ▶2006 음악속의 미술展-art in music(정호양) 500만원 ▶2006서양화전(허종구) 350만원 □양주 ▶김형철 작품전(김형철) 300만원 ▶사랑은 모자란다 시집발간(나병춘) 200만원 ▶제6회 사미술협회 양주지부 회원전(안용현) 300만원 ▶제1회 양주음악정기발표회(황상복) 300만원 □동두천 ▶제7회 정기연주회(김지현) 300만원 ▶동두네 옛소리(선소리)감습(이재혁) 300만원 ▶제5회 생활도에 Gift 전(정영희) 3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탈춤(홍경희) 300만원 □연천 ▶놀랑춤-제9집 동인지 발간 및 시화전(문춘식) 220만원 ▶연천문화 발간(문한중) 300만원 ▶제6회 전시회(변선호) 340만원 ▶제18회 대추나무연 전시회(이혜원) 250만원

김형철 기자 best114@paran.com

## 초대 漢詩 至冬至節感懷 (지동지절감회)

紛紛白雪掩群峯(분분백설엄군봉)

분분한 백설이 여러 봉우리를 가리웠는데

爐煮清醪親養獻(노저청요친양헌)

희로에 술데워 어버이 봉양 드리고

溫柔孝悌無誇力(은유효제무과력)

은유 효제하여 힘을 자랑할 일 없이 하고

陰盡陽生冬至至(음경양생동지제)

음기가 다하고 양기가 살아나니 동지가 되고

不畏寒波嶺秀松(불畏한파령수송)

한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개에는 소나무 빼어나네

市沽濁酒客邀供(시沽濁酒객邀供)

저지에서 탁주를 사서 손님 맞이하여 이비지하네

行篤言忠見善從(행篤言忠見善從)

행복한송하며 학업을 보인 따르서 하네

惟祈來歲世平寧(유기래세평녕)

오직 오는 해에는 세상이 평화하기를 바라네



香隱 柳鳳鉉 포천 한시사 고문